

# 專門家 領域

김 려 성

증권감독원 실장

“자네가 진짜 컴퓨터 전문가란 말이지”

“그렇다니까 그러네”

“그럼 자네 컴퓨터를 몇 년이나 했나?”

“글쎄 아마 그럭저럭 한 25년은 족히 될걸세”

소주 한잔을 입에 털어 넣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곱창 안주를 집어서 입에 넣으려다가 김실장은 친구인 박선생을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포장마차 천막사이로 들어오는 바람때문에 한기를 느끼며 다시한번 바버리코트 깃을 여미면서 박선생에게 소주잔을 내밀었다.

“그런데 왜 자네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처럼 돈방석에 앉지를 못하고 있나.”

“야! 이 친구야. 그건 나를 비교하는 좋은 예가 아닐세”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컴퓨터로 밥을 먹고 살았다면 돈도 좀 벌었어야 하지 않나.”

“별기야 별었지만 그거야 월급받고 살았으니 다른 봉급쟁이와 뭐 다를 바가 있겠나.”

“그럼 자네도 빌 게이츠처럼 프로그래머 출신인가?”

“응, 한때는 프로그램도 많이 짰었지. 그러나 지금은 그냥 관리자라네.”

“음, 관리자라! 그럼 자네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오늘따라 고등학교 옛 동창생인 박선생은 무슨 심사가 뒤틀렸는지 김실장을 피곤하게 하고 있었다. 왜 같은 프로그래머 출신인 빌 게이츠는 돈도 많이 벌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게 되었는데 25년이나 종사했다는 컴퓨터 전문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등, 새로 나온 개인용 컴퓨터의 작동법을 정말 잘 알고 있느냐는 등. 김실장은 영 술맛이 나지 않았다. 어저께 사무실 일만 해도 그렇다. 새로 들어 온 PC를 작동시키려고 김실장은 신입직원 애송이를 몇 번이나 불러야 했는지 모른다.

“야! 이 사람아. 잔 받아. 술 먹다가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해.”

“아니 이게 몇 병째야. 언제 이걸 다 마셨나!”

술상 위에는 뚜껑 열린 소주병이 즐비하게 도열하고 있었다. 그래 과연 내가 컴퓨터 전문가인가? 누가 질문해도 나는 컴퓨터 전문가인데. 그런데 요즈음 김실장은 전에 같지

않음을 실감하고 있다. 지난번 부서 회식때만 해도 그렇다. 신참 대리와 고참 과장이 술이 거나하게 취하더니 “부장님 세대는 코볼세대지만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는 4세대입니다. 파워빌더나 델파이세대 입니다. 아시겠어요.” 술에 취해서 혀가 꼬부라지면서 내 뱉던 말이 기억난다. “스크립트 언어로 승부를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김실장은 땀감을 썬 듯 입맛이 썩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것도 아니다. 학교 선생인 이 친구가 그동안 컴퓨터학원을 열심히 다녀서 자기가 봉직하는 학교에서는 PC를 제일 잘 다룬다는 얘기가. 그래서 빌 게이츠 너 25년동안 한게 뭐 있었냐는 등 비꼬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만 가지.” 김실장은 집으로 가고 싶었다. 언제부터인가 주변에 몽땅 컴퓨터 전문가들만 있으니 살맛이 안난다. “그러지 말고 2차 가자고.” 박선생도 어느새 혀가 꼬부라져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구석에서 조용히 잔만 비우던 안차장이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로 박선생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박선생님, 내 말좀 들어보이소. 내 참다참다 견딜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예, 박선생님 PC를 잘하는 것은 대단히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아마추어가 악보를 보고 피리를 불어

봤다는 이야기고예, 우리 김실장님은예 전문 교향악단의 지휘자 아닙니까. 어디서 피리부는 법 좀 배웠기로서니 교향악단의 지휘자 보고 음악을 안다고 위세하는 겁니까?” 박선생은 술에 취했는지 안차장 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손을 휘휘 내저으며 빌 게이츠를 연발하고 있었다. 김실장은 밤하늘의 찬 공기를 깊이 드리쉬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니 우리나라 정보산업계는 앞으로 빠르게 발전할거야.”